

약초농사 올해도 작황부진

생산량 급감으로 국산약재 전반적 상보합세 구기자 산수유등 일부 품귀약재 사재기 우려도

지난해에 이어 올 약초농사 작황도 전반적인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듯.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모과등 열매 약재류는 특히 흉작이어서 햇것 출하기입에도 국산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

황기, 당귀, 천궁 뿌리약재의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은 비교적 증가했으나 지난 여름 수해피해와 작황부진으로 시세는 여전히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본격 수확작업 진행으로 햇것 출하량이 늘어나면 산지시세가 다소 빠질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리 큰 폭의 시세하락은 없을듯.

이처럼 작황부진으로 인한 생약 생산량 감소로 벌써부터 산지엔 물량 귀한 품목을 미리 잡아두려는 장사꾼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못지않은 국산약재 가격급등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약시장의 경기는 다소 활기를 되찾은 듯도 싶고 국산약재 시세도 전반적인 상보합세 이루고 있지만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약재 범람 영향으로 실질적인 국산 약재 물동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수해로 인한 작황부진 때문인지 햇것 출하기 입에도 시세는 여전히 상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가격은 1년근 소황기가 8천5백원 선으로 지난 여름 9천5백원 시세보다는 다소 내림세이지만 예년 햇것 출하기에 비하면 3천원 폭 높은 시세다. 3년근 중황기는 2만3천원선, 6년근 대황기는 3만5천원 선으로 보합세다. 이달부터 햇것 출하가 본격화되면 소황기 시세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귀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1월1일 현재 5천원(통), 6천원(절) 선으로 지난달 보다 5백원 폭 하락세다. 전반적인 작황은 그리 좋지 않은 편. 그러나 지난해비 재배면적 증가로 햇것출하가 본격화될 이달부터는 시세가 다소 빠질것으로 전망된다.

황금 11월1일 현재 근당(6백g기준) 1만4천원 선으로 폭등세. 지난해 같은 시기 7천8백원 시세보다 2배 가까이 오른셈이다. 작황부진 영향 때문인

〈국산약재 '98 '99 시세비교〉

품 목	시 세		비 고
	'98	'99	
구기자	12,500	19,500	△ 7,000
(토)당귀 통	4,000	5,000	△ 1,000
절	5,000	6,000	△ 1,000
독 활	3,000	3,700	△ 700
두 총	5,500	4,500	▽ 1,000
목 과	1,400	2,300	△ 900
(식)방풍	3,500	4,700	△ 1,200
산수유	15,000	27,000	△ 12,000
(원)오가피	8,300	13,500	△ 5,200
(막)오가피	2,000	3,500	△ 1,500
오미자	13,500	17,000	△ 3,500
의이인	2,400	3,000	△ 600
작 약 (상품)	4,500	5,500	△ 1,000
(중품)	3,000	4,000	△ 1,000
(토)천궁	6,000	8,500	△ 2,500
(일)천궁	4,500	5,500	△ 1,000
백 사	3,800	6,000	△ 2,200
(백)하수오 (상품)	3,800	5,500	△ 1,700
(중품)	2,500	4,000	△ 1,500
형 개	1,200	2,700	△ 1,500
황 금	7,800	14,000	△ 6,200
황 기 (1년근)	6,000	8,500	△ 2,500

지 햇것 출하기 입에도 물동량이 거의 없어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올 수확 물량도 많지 않을것이란 분석 속에 폭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수유 품귀. 산지에서 조차 국산 산수유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지난

해에 이은 작황부진으로 햇것 출하량도 소량인데다 상품(上品)은 더욱 귀해 물동량이 거의 없는편. 산수유 산지인 전라남도 구례에서 11월1일 현재 햇것 출하기시세는 근당(6백g기준) 2만6,7천원 선 경동약령시장 내에서는 2만8,9천원, 3만원 선까지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귀해 상보합세 계속될 듯.

치자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치자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천3백원선으로 소폭 오름세 경향. 최근 몇년동안 과잉재배로 인한 시세 폭락으로 그동안 치자를 재배해 오던 농가에서 발을 갈아엎는 바람에 올 치자 생산량이 급감한 때문이다. 예년에는 상인들이 생것으로

근당 250원에 농가로 부터 구매해 7,8백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산지에서 근당 5백원에 생것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작약 올 작약 생산량은 지난해 수확량의 10분의 1에도 못미칠 것이란게 산지인들의 분석이다. 작약 재배면적은 4~5년 전 시세폭락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 파종후 3~4년 후에나 수확이 가능한 다년생이라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회복기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 다년생이라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회복기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 생산량 급감이후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량도 꾸준히 소진돼온 까닭에 남아있는 물동량도 그리 많지 않아 꾸준한 상승세 전망. 그러나 최근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작약 시중유통으로 국산작약 시세형성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11월1일현재 의성산 상품이 근당(6백g기준) 5천5백원선, 하품이 3천5백원선, 호남산은 근당 4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하수오 11월1일 현재 근당(6백g기준) 상품이 5천5백원선, 중품이 4천원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과잉생산으로 바닥세를 보이던 하수오 가격이 올 생산량 급감으로 다소 상승세 조짐. 지난해 같은시기 하수오 상품은 근당(6백g기준) 3천8백원 선 중품은 2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 됐다.

〈문정희〉

구기자 지난 여름 태풍 피해 영향으로 올 구기자 농사는 보기도문 흉작.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량을 먼저 확보한 일부 상인들에 의해 햇것 출하 물동량은 그리 순조롭지 못한 편이다. 시세도 지난 이맘때 보다 56%포인트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8천~1만9천5백원선. 산지에서도 1만7,8천원 선이다. 지난해 같은시기엔 1만2천원선에 거래됐다. 이달까지 햇것 출하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수확물량이 많지 않을것으로 보여 시세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가격급등현상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황기 황기 역시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코끝에 와닿는 바람이 제법 매섭게 느껴지는 요즘엔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몸의 기온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주부들이 가족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시기도 바로 지금의 환절기. 정성스레 잘 우려낸 한방차 한잔이면 울겨울 독감 감기 증은 피해갈 수도 있다.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방차는 콜레스테롤 감소로 부터 치매예방에 까지 건강을 돕는 효과가 있다. 몸에 좋은 한방차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 보자.

- ◇구기자차
침침한 눈을 밝게 해 장년층에 더욱 좋다. 물 1l에 말린 구기자열매 20g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때 까지 달인다. 구기자는 살짝 볶아야 신맛이 없다.
- ◇인삼 영지차

‘한방차’ 한잔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입맛을 돋우고 위장을 강화하여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물 7백ml에 인삼 5백g, 영지 7g, 대추 25g을 준비한다. 찬물에 영지를 넣고 끓인다음 인삼을 넣어 우려낸다. 이때 약한불에 두시간 정도 우려내면 제맛이 난다. 쓴맛이 강하면 대추를 넣어 끓여도 좋다.

- ◇모과차
모과를 4등분해 속을 빼고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어둔다. 모과와 설탕을 같은 양으로 섞어야 상하지 않는다. 물이나 꿀에 모과를 넣고 끓여 마신다.
- ◇대추차

체내 분비를 촉진하고 해독작용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치료 효과가 크다. 대추 1백20g에 물 7백ml 비율이 제맛을 낸다. 대추에 칼집을 내 끓는 물에 넣어 한시간 우려낸 다음 물의 양이 4분의 3정도 될때까지 끓인다. 계피를 함께 끓이면



달콤쌉싸래한 맛이 난다.

- ◇국화차
감기로 인한 두통과 해열에 효과적. 국화잎은 약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화 3~4송이를 넣고 끓인 물을 부어 마른 국화에 물이 배면서 꽃잎이 퍼지면 꿀을 타 마신다.
- ◇생강차
몸을 달리는 대표적인 감기에방 음료. 껍질을 벗겨 얇게 저민 생강과 대추를 넉넉히 넣고 물을 부어 달여 꿀을 넣어 마신다.
- ◇인동초차
변비·기관지염·몸살감기·관절염·동맥경화증·위궤양 치료에 좋다. 물 7백ml에 인동초 줄기 15g을 준비한다. 찬물에 인동초를 넣고 두시간 우려낸 다음 물의 양이 4분의 3으로 줄때까지 끓인다.